

영암군의원, 조합장 비방 메시지 살포 파장

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열 조짐 영암농협 “네거티브 법적 대응” 군민 “선거중립·선관위 조사”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영암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과열·혼전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의원이 사실확인조차 안된 내용의 뉴스를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에 나선 사례가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영암농협 등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 A 군의원이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뿌렸다. ‘조합장과 가족회사에 수십억 불법대출’이란 내용을 모 인터넷 언론에 제보했으며 이를

재한 기사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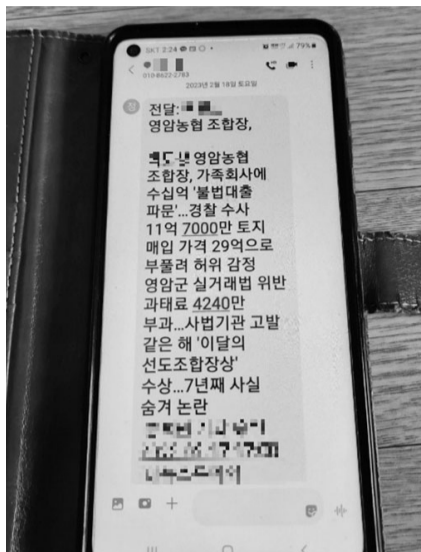
메시지를 받은 상대 후보와 부인 등이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인터넷 기사를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영암농협은 발신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A 군의원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선거운동 시작도 전에 잡음이 나오는데 대해 군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암군 주민은 “선거중립과 지역화합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이 지역구 농협장 선거에 개입해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더 이



영암군 A의원이 전달한 영암농협조합장 비방 인터넷 기사.

상 잡음이 일지 않도록 자중해야 하며 선관위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농협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근거없는 내용을 발취해 사실인양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A 군의원은 “상대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적도 없다”며 “인터넷 보도내용을 지역구 주민에게 배포한 것은 주민의 정보공유 차원이며 상대방 후보의 비난과 선거 개입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농협은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현 조합장이 3선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전 조합장무 등 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글·사진=영암 이병영 기자

무안군, 빨낙지거리 활성화 논의 아이디어 39건 발굴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단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지정 맛도남도 빨낙지거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부서에서 발굴된 맛도남도 빨낙지거리 활성화 방안은 △기획실 ‘낙지거리 북권&쿠폰 발행’의 4건 △신도시지원단 ‘관광지 등과 연계한 할인혜택 제공’의 4건 △미래성장과 ‘낙지거리 음식점 메뉴 개발 컨설팅 진행’의 1건 등 26개 부서가 아이디어 39건을 발굴해 빨낙지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고된 안건들을 검토해 우수한 아이디어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전남대 어류 표본 기증받아 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표본연구회로부터 어류 액집표본 300여점을 기증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어류 표본에는 과거 43년 전(1980년)부터 확보된 표본 뿐만 아니라 쉬리 등 한반도 고유종 27종이 포함돼 과거 한반도 생물상 조사연구에 있어 그 가치가 높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기증표본에 대해 분류학적 재검토를 거치고, 국가 분류체계에 맞는 확정표본으로 제작해 영구 보존·활용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 섬지역 1948억 투입 환경부,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안군의 광역상수도망 구축과 마을상수도 정비 등을 통한 도서지역 물부족 문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안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가 가능하도록 상수도 비상연계관로를 구축한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마을상수도 정비 등 향후 정수장 증설 등에 필요한 기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태와 자은, 안좌, 팔금면 등 중부권은 2025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 장산도 비상연계 관로 설치와 2030년까지 비금, 도초 비상연계 관로 설치계획 등을 포함해 1948억원의 예산을 승인받았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와 2021년 3월 임자대교 개통, 퍼플섬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용수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용수 수요량을 예측해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정비를 통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했고, 이번에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도 고군면, 우리동네 복지 기동대 봉사활동

진도군 고군면이 최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싱크대 교체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관으로 싱크대 교체와 부엌 도배 장판 등 불편 해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진도군 제공

강진청자축제, 한우·청자 할인 이벤트 ‘눈길’

23일부터 3월1일까지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강진청자축제에 각종 ‘대박 할인’ 이벤트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청자축제 기간 1등급 이상 한우를 등심, 안심, 채끝, 치마, 업진, 부챗살, 국거리용, 불고기용 등 구분없이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가격 할인가로 판매한다.

축제 기간 동안 1인당 하루 최대 2kg 이내로, 음식 부스 앞 공터에서 1일 2회(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4시~7시) 진행된다. 그동안 유례없던 ‘폭탄 세일’인

만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동안 청자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관요 제품은 전 품목 30%, 민간요 제품은 업체별로 최대 30% 할인 판매하기 때문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쏟아진다. 선착순 3000 명에게 5000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축제장이나 강진읍 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5000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보물 찾기’와 ‘미션 수행’, ‘증강현실(AR) 청자 찾기’ 이벤트도 필수 코스 중

하나다. ‘AR 청자 찾기’는 ‘우리동네 보물찾기’ 어플을 다운 받아 참여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에게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청자 굿즈를 제공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내·외 셔틀버스도 마련돼 있다. 시외버스는 광주~강진 터미널~가우도~청자도요지~당목을 연결하는 노선이 하루 4~5회 운영되고, 관내 셔틀버스는 강진종합운동장~군청~강진 터미널~청자도요지 코스로 하루 12회 운영한다. 자세한 운행 시간은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행복 정책 토크 소통 행보

신우철 완도군수가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12개 읍면을 돌며 ‘행복 정책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민 행복 정책 토크’는 21일 금일읍과 생일면을 시작으로 22일 보길면과 노화읍, 23일 청산면과 소안면, 24일 완도읍, 27일 고금면과 약산면, 3월2일 금당면, 6일 군외면과 신지

면을 방문한다.

신 군수는 올해 추진하게 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대형 SOC 사업, 행사·축제, 농수축산업 활성화 방안, 복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현안 사항 해결 및 군 발전 방안을 군민과 함께 모색한다.

군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하고 군민과 의견을 나누는 계획이다.

완도=최경철 기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목포시, 3월15일~4월28일 신청

목포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에 1인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월15일부터 4월28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 전원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격확인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카드로 1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목포=정기찬 기자

대졸 신입사원 품질 마인드 교육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며 우수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품질 마인드 함양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달가량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신입사원들의 품질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내업과 외업 공정별 검사 품질 관리 실습, 조립 단계별 정도 주요 관리사항 실습, LNG CSS 품질 관리 및 테스트 등이다.

교육은 지난 1월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60명을 대상으로 30명씩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1일 시작된 1차수 교육은 내달 2일까지, 2차수 교육은 3월6~31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우수물량 확대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도 점차 늘리고 있다. 지난 2021년 54명, 지난해 71명에 이어 올해는 벌써 60명을 채용했으며 지난 2008년 호황기에 입사했던 73명 이래 최대 규모다.

영암=이병영 기자